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9
----------	-------

발의연월일 : 2022. 7. 6.

발 의 자 : 윤재갑 · 고민정 · 문진석
서동용 · 서삼석 · 소병철
신정훈 · 위성곤 · 이개호
주철현 · 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공적업무인 시험관리 업무를 책임감 및 공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 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 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및 위원 등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u> <u>의제)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u> <u>위탁받은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u> <u>「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u> <u>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및</u> <u>위원 등은 「형법」 제129조</u> <u>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u> <u>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u> <u>다.</u>